

特 輯

SriLanka, 79 年에 尿素生産

- 肥料輸入增大는 계속되지 않는다 -

英誌「 Nitrogen 」(5 ~ 6 月号) 는 「 SriLanka 의 肥料輸入增大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 1980 年에 国產尿素 」란 題下의 解說記事를掲載하였다. 이에 依하면 SriLanka 의 肥料概要是 生産이 76/77 年에는 全無한데 대해 消費는 同年 4 万 7,000`屯 (推定) 이라는 것. 또 尿素肥料 project로서 Ammonia 年產 14 万 7,000 N屯, 尿素同 14 万 3,000 N屯 能力의 Plant 가 Colombo 近處에 建設中으로서 이것은 79 年 下半期에 操業을 開始할 預定이란는데 同記事內容은 다음과 같다.

☆ ☆ ☆

「 1979 年 下半期中에 SriLanka 最初의 尿素工場에서 生産되는 尿素를 使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当初 모든 Project 가 廢棄될 것이라는 위구가 널리 퍼진 1977 年에는 이렇게 늦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建設은 事實 短期間이었으나 늦었다. 이동안 政府는 国家의 觀點에서 計劃案을 서둘러 評価한 것이다.

決定은 내려져 Colnmbo 發展의 計劃대로 推進 될 것으로 確認되었다.

SriLanka의 경우 国内肥料工業에 関한 論議에 重点이 두어진 두가지 要因이 現在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SriLanka는 海外에서 必須物資를 購入할 外貨가 不足하여, 둘째로 国内肥料消費(特히 尿素)가 모다시 增大의 길을 더듬고 있는것이 바로 그 것이다.

SriLanka에서 肥料需要는 增大해 가고 있다. United National Party가 政府를 잡은以來 食糧穀物生產의 自給自足의 必要性을 強調하게 되었다. 그結果 官吏는 肥料輸入(特히 尿素)의 増大보다 農業部門의 能力を 拡大하는 計劃을 推進하게 되었다.

1974年은 世界的價格高騰과 國際收支困難의 壓力에 屈服하여 政府는 意外로 米作에 대한 肥料助成金을 排除하였고 그후 農業發展은 主로 施肥量低減의 結果를 가져왔다. 故而 畜作生産도 最近 이의 影響을 받아 탐탁치 않게 되었다.

公營部門 State Fertilizer Manufacturing Corp를 위해 建設中인 Sapngaskanda 新設 Ammonia/尿素工場은 SriLanka 經濟의 限된 工業基盤에 크게 寄与할 Kellogg Overseas Corp가 Ammonia 年 14万 7,000 N吨 및 尿素 14万 3,000 N吨能力의 Plant 設計, 그리고 Engineering 및 建設에 대한 契約을 締結하고 있다. Ammonia 工場은 ICI 蒸氣改質法이 採択되었고, 原料로서는 Ceylon Petroleum Corp 製油所에서 나오는 Nattha를 使用할豫定이다. 그리고 尿素工場은 Stamicarbon 法을 採用하게 될 것이다.

이 Project는 지금까지의 이노라最大規模의 工業開發로 알려져 있고 있는데 建設資金 1億 5,200万弗은 많은 資金源에 依해 充當되고 있으며 Asia 開發銀行이 最初로 3,000万弗을 貸与하고 있다.

그후 交涉에 依해 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 (쿠웨이트 아랍 經濟開發基金) 가 2,500万弗, 西獨政府가 2,500万弗, 印度政府가 1,200万弗을 貸与하게 되었다. 印度의 Loan은 Engineers India Ltd의 機器 및 Service 契約과 完全히 条件付로 되어 있으며 世界銀行 Loan 協會의 条件으로서 最初의 生產 3個年間은 Plant 運転을 위해 Managing Contractor를 指名 하기로 되어 있다.

印度도 Loan 交涉中에 国内所要量을 超過하는 生產剩餘을 모두 購入하기로 協定했으나 價格은 아직 決定되지 않았다.

1980年頃에 尿素는 Sri Lanka 農業部門에서 보다 加一層 重要한 肥素源이 되어질 것이다.

傳統的으로 肥素所要量의 50%는 尿素의 形態로 施肥되며 그 2分의 1이 米作에 充當되고 있다. 昨年度의 非公式的인 暫定的推定에 依하면 肥素消費量은 4万 7,000 N屯으로서 前年度의 水準을 儘少하나마 上廻하였다. 이中 尿素消費量合計는 1975/76 年度의 2万 6,000 N屯에 대해 2万 5,000屯 程度로 推定된다.

다른 主要肥素源인 硫安은 近年에 이르러 尿素때문에 穎은 地盤을 若干回復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土壤酸性化에 뛰어난 效果가 있는 結果로 보이는데 消費量은 1976/77 年度에 前年度보다

約 18 % 增大한 1万 9,900 N吨에 達한 것으로 推定된다.

1975/76 年度에 肥料消費가 大幅의으로 줄어든 (前年度比 20 % 減主要輸出農作物生產減少와 米作部門의 少作에 反映되어 있다) 結果로 보아 政府는 10 個年 肥料計劃을 作成했다. 그 目的은 政府의 意向을 明確히 規定하는데 있으며 1985 年頃에 硝素肥料消費를 12万 4,000 N吨으로 增大하는 指令을 内包하고 있다. 楽觀的으로 이 需要의 大部分을 國產肥料로 充當하려고 하는 希望은 新設 Plant의 操業率을 빨리 80 %까지 引上할것을 必要로 한다.

가까운 将來에 米作에 對한 施肥水準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輸入量增大로 이를 充當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現在의 諸指標에 依하면 今年度의 硝素輸入量은 1976/77 年度 輸入推定量의 2倍가 될것이라는 事實이다. Indonesia는 昨年度에 尿素大量輸出국이 되어 SriLanka 購入尿素 2万 5,000 N吨의 約 2分의 1을 供給했다.

Indonesia 尿素가 基礎価格과 連鎖되어 있어 有利한 立場에 있다 는 点에서 日本은 連續 2年동안 伝統的市場占有率 80 % 中의 小部分밖에 回復치 못했다.

美國으로부터의 輸入은 1975/76 年度의 1万 2,000 N吨에서 Zero로 低落했다.

硫安供給國으로서의 日本 및 다른 諸國의 將來는 國內生產計劃이 아직것 發表되지 않고있어 보다 有希望視되고 있다.

日本은 1976/77 年度의 硫安購入推定量인 2万 N吨의 約 90 %를 차지할만큼 如前히 硫安의 主要供給國으로 남아있다.